

[ 사회 ]

# 내신반영 점진 확대 수용

## 교육부, 주요 사립대 건의에 한발 후퇴 “연차별 반영비율 밝히려” 막판 갈등

교육부는 24일 대학들이 제시한 ‘내신 반영비율 연차별 확대’ 방안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 대학 측에 단계적 내신 반영을 상향 조정 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간 교육부와 마찰을 빚었던 주요 사립대들이 “몇 년치 입시안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또다시 반발하고 나서 ‘막판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입학처장협의회 의결이 전국 대학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별 확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방침을 밝혔다.

‘내신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올해 내신 반영비율 50% 확대’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전국 입학처장협의회가 제시한 단계적 내신 반영비율

확대 제안을 받아들여겠다는 것이다.

전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은 앞서 지난 23일 “학생부를 9등급으로 구분, 반영하고 등급별 점수 부여 방식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처리한다”며 “내신 반영비율은 각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등 6개 사립대는 21일 학생부 반영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등급간 차등화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울대는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하겠다는 ‘절충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수능이 임박해 있고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

을 조기에 막아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일단 대학들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25일 중 최종 입장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 사립대들은 이날 교육부가 각 대학에 단계적으로 내신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기로 했다는 소식에 “몇 년치 입시안을 미리 결정하기란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또 교육부 방침의 근거가 된 전국입학처장협의회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제안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등 ‘내신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언제까지 지 및 퍼센트를 올리고, 언제까지 무엇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입학정책이 아니다. 입시란 것은 그때그때 상황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니냐”며 교육부가 내신비율 연차확대안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유석오(앞줄 왼쪽·형)·석환(“오른쪽) 일병의 묘역. /연합뉴스

## 6·25 생사 함께 한 형제

### 같은 날 입대... 화순 전투서 한발 전사

#### 사연 뒤늦게 알려져

6·25 전쟁 당시 같은 날 입대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화순군 화하산-밀봉산 전투에서 한 날 전사한 형제의 사연이 뒤늦게 공개됐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나란히 안장돼 있는 고(故) 유석오·석환 일병이 주인공. 24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유 일병 형제는 1950년 12월31일 국군 8사단에 입대해 10연대에 함께 배치를 받았다. 형 석오(당시 19세) 일병과 동생 석환(당시 17세) 일병의 군번은 각각 ‘0181005’ ‘0181014’로 바짝 붙어다녔던 것

으로 보인다.

형제는 1951년 4월5일 빨치산 토벌작전을 위해 화순군 이양초등학교에 도착, 이튿날 새벽 빨치산의 기습공격으로 전사했다. 당시 군인 26명이 전사했고, 주민들이 장례를 치러 화순을 이삼곡리에 매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군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2001년 5월21일 실시한 유해발굴 작업에서 형제의 유해를 동시 발굴했다. 또 유전자(DNA)를 채취해 전사자 유가족으로부터 미리 제출한 DNA와 대조한 결과 신원을 최종 확인하고 2002년 4월26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연합뉴스

### 사변? 한국전쟁?... 명칭 달라 혼선

## 교육부 “6·25 전쟁으로 쓰세요”

“6월25일은 ‘전쟁기념일’인가요 아니면 ‘사변일’인가요?”

1950년 6·25 전쟁(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반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이 날을 규정하는 단어가 정착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근·현대사 관련 용어의 혼선을 막자는 뜻에서 2004년 4월 확정된 교과서 편수용어를 공개하면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전쟁을 ‘6·25 전쟁’으로 쓸 것을 권고했다.

교과서 편수용어는 교육부가 학계, 대학 등과 함께 심의해 결정된 것으로 국사와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이 용어만 쓰인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6·25 전쟁’과 ‘6·25 사변’, ‘한국전쟁’ 등 여러 단어가 섞여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달력에는 6월25일에 ‘6·25 사변일’이라고 적혀 있으며, 국립국어원은 ‘한국

전쟁’과 ‘육이오전쟁’을 널리 쓰이는 역사 전문어로 소개하고 있다.

6·25 전쟁이 통일된 용어로 정착되지 않자 일반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모씨는 21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행자부에선 ‘6·25 사변일’이라고 돼 있지만 신문기사엔 ‘6·25 전쟁기념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하면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전쟁을 ‘6·25 전쟁’으로 쓸 것을 권고했다.”

이상이 국립국어원장은 24일 “6·25의 경우 국가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여러 용어로 변해왔다”며 “그러나 한 가지 사건을 일컫는 말로 여러 용어가 쓰이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 통합해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평화로운 때가 가장 조심할 때 안보 신고는 ‘111’

**비개인 오후**  
흐리고 비가 온 후 오후에 개겠다.

**6월 25일**  
(음 5월 11일)  
◇전국날씨

지역	날씨	기온
서울	흐리고 비	19~24
부산	흐리고 비	18~22
대구	흐리고 비	19~27
전주	흐리고 비	19~27
광주	흐리고 비	18~22
제주	흐리고 비	18~22

서울날씨  
알바다=남서~북서풍 과고 0.5~1.0m  
만바다=남서~북서풍 과고 1.0~1.5m  
남해날씨  
알바다=남서~북서풍 과고 0.5~1.0m  
만바다=남서~북서풍 과고 1.0~1.5m  
목포 밀물 < 09:23 썰물 < 03:04  
목포 밀물 < 22:40 썰물 < 15:22  
여수 밀물 < 04:34 썰물 < 11:01  
여수 밀물 < 17:49 썰물 < 23:48

▲해돋이 05:19 ▲해질 19:51 ▲달돋이 15:05 ▲달질 01:14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7/1(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0/28	21/28	22/25	21/28	20/30	21/26

## 28일부터 다시 장맛비

이번 주 초반 광주·전남 지역에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가 목요일인 28일께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월요일인 25일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낮 동안 한두 차례 비가 내리면서 해안 지방부터 개겠다”며 “강수 확률은 40~60%에 강수량은 5~20mm가 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비가 갠 후 광주·전남 지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28일께 다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한편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 지역은 영랑 53.5mm를 최고로 24일 오후 6시 현재 ▲담양 32.5mm ▲홍도 25mm ▲광주 17mm의 장맛비가 내렸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공고·광주여상 특성화고 육성 완도수산고 2010년 국립으로 전환

전남공고와 광주여상고가 특성기술 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로 집중 육성되고, 완도수산고는 2010년께 국립학교로 전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계고 집중육성을 위해 올해 시작한 ‘산업별 정부부처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대상에 전남공고와 광주여상고 등 전국 63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별 정부부처 전문계고 육성사업은 정부가 2월 발표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기계·전자·e-비즈니스·자동차 등 특성화 분야별로 중소기업청·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전남공고와 광주여상고는 매년

2억원씩 5년 동안 10억원이 지원되며 학과 개편, 교재 및 교구, 학습자료 개발 등을 거쳐 특성화고로 전환된다.

전남공고의 경우 특수용접·비파괴·자동화설비·건축디자인·GPS측량 등의 지역 중소 제조기반 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계열 통합형 전문계고 특성화고’로 육성될 예정이다. 광주여상고는 디자인계열의 특성화 인력을 양성해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기여하고, 회계분야 전문 인력을 배출, 명문 상업계고등학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완도수산고는 삼남해양과학고·경남해양과학고 등과 함께 오는 2010년께 국립학교로 될 예정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학생독립운동 기념탑 받침돌·경계석 파손 40대 노숙자 붙잡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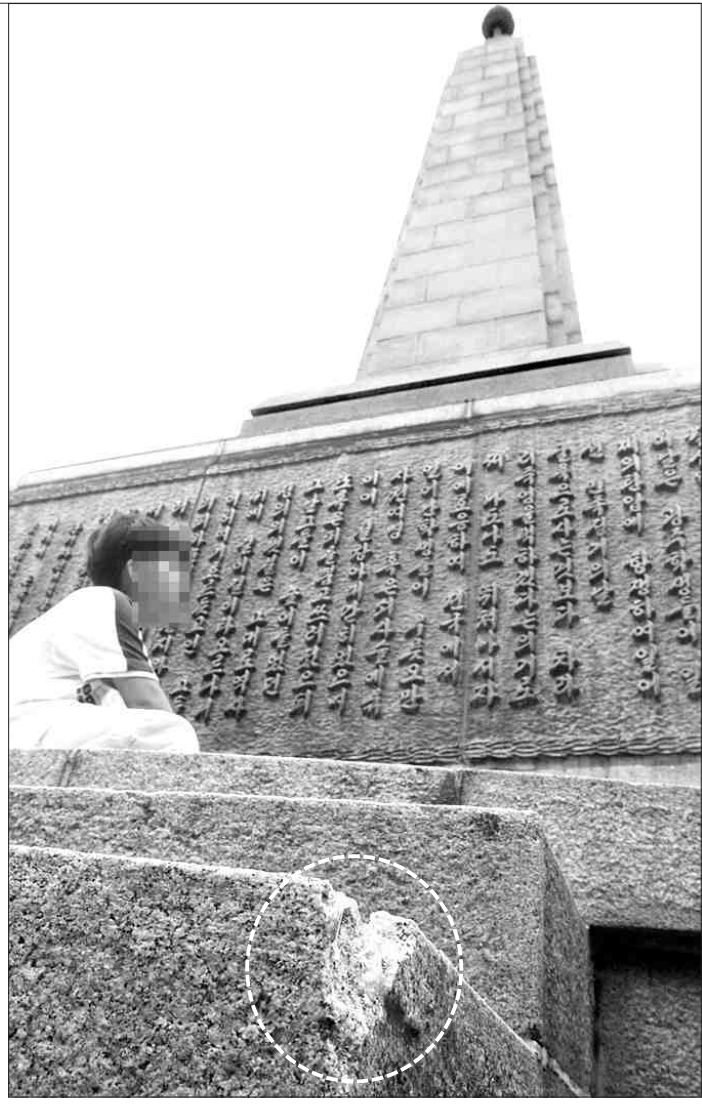
광주 북부경찰청은 24일 광주시 지정문화재인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훼손한 노숙자 김모(41)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 교정에 있는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의 받침돌과 경계석 6개 등을 정과 쇠파지로 파손한 혐의다.

김씨는 받침돌을 길이 15~20cm(깊이 2cm)로 부수고 경계석도 7~10cm가량 훼손했다. 학교 경비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앞서 10일에도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인근에 있는 고건 전 국무총리 석수 기념비와 5·18 민주항쟁 조형물 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 주변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 순간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누군가 기념탑을 훼손하라고 지시했다”며 황실수술하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정신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제일고 교정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받침돌과 경계석 일부가 노숙자에 의해 파손됐다. 점선안은 파손된 부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7월 2일**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첫전도 개강

- 기본서 핵심요약으로 심화과정 이해
-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한 출제 포인트 이해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구도심 앞 전일빌딩 7F)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점단점 앞 광주은행 4F)

광양점 ☎ 795-0990 (중앙리뷰센터 8층)

이론이 아닌 실무에  
실용적으로 적용!!  
2개월 과정으로 6개월 효과

**포토샵(Photoshop)**  
**코렐드로우(CorelDRAW)**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실무반 모집**

현, 하나로통신 및 협력회사 디자인내팀 직강!!

교육시간 : 오후 3:30 ~ 5:30  
                  야간 7:30 ~ 9:30  
교육기간 : 7월 2일 ~ 8월 31일  
교육과정(8주)  
엑셀, 파워포인트 - 2주과정  
포토샵, 일러스트, 코렐드로우 - 6주과정

**현대 컴퓨터 학원**  
☎(062)224-4580 (광주동부경찰서 옆)

= '07년 합격이 가장 용이한 전남 교육행정직을 잡아라! =

**7.9 급 공무원 대특강**

**속보** = 전남 9급 교육행정직 을 하반기 시행 =  
◎ 채용인원: 000명(약 50명) 이상 필드, 합격에 철호의 기회!  
※ 05년 12월 11일 165명 공채, 1875명출원, 응시률 9:1 경쟁이었다 ※

= 전남 일반행정직 10월13일 시험 시행 =  
7급 21명·9급 154명(7월초 확정공고)

개강 **7월 2일 주야반모집**  
(현재 예약 접수중)

= 無等은 선배 公務員들이 입증하는 높은 합격률이 있습니다. =

www.mdgosi.co.kr ☎ 222-4560

**삼성빌딩 임대**

층/별/안/내

- 7F 사무실
- 6F 146평 분할가능 병영및 사무실
- 5F 146평 분할가능 병영및 사무실
- 4F 146평 분할가능 병영및 사무실
- 3F 146평 분할가능 병영및 사무실
- 2F 남양알로에
- 1F LG텔레콤 임대 33평 / 콜로에

★ 대형주차장 완비  
★ 병·의원 입주시 임대료 완료시 30% 할인  
★ 재개발지역 확정, 투자기회 높음  
★ 1층 33평(의류, 약국, 서점 등)

관리사무실 | (062)526-3140 H.P.010-8285-3170

www.kimyoung.co.kr  
그동안 김영순선 12만여명 합격

앞선 시작, 앞서가는 힘! 상위권 대학도 역시!  
**김영선생 대학편입 여름방학 편입대특강**

개강: 1차 - 6월 25일, 2차 - 7월 2일  
올해도 역시! 거침없는 합격률!!

경희대(서울) 178명 합격, 고려대(안양) 228명 합격  
서강대 104명 합격, 성균관대 270명 합격, 중앙대 282명 합격  
한국외대 265명 합격, 한양대 385명 합격 등(이수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시! 김영! 중앙대 102명 중 67명, 한양대 185명 중 137명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 227-8088